

## 북한 어린이들의 놀이노래가사의 의미 분석\*

###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Play Songs of North Korean Children

이 순 형

Yi, Soon-Hyung

####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meaning of words in the play song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Sixteen children who had escaped from North Korea participated in this survey in Seoul by responding to a questionnaire. In the DPRK, children sing formal songs, used as instruments of ideological socialization. Among the songs were 4 composed prior to the creation of the DPRK in 1945. The other songs were composed after 1945 and exhibited ideological characteristics. Despite differences in sources, themes, and ideologies of play songs, some of them contained common themes, materials, rhythms, and typical Korean emotional structure. Considering the power of play songs in spreading cultural influence, they might be the key to resolving psychological conflicts of both Koreas after unification.

---

\* 이 논문은 1999년도 省谷學術文化財團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일부임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I. 문제 제기

놀이는 아동들이 유머를 배우며 스스로 생각하고 환경을 탐색하는 학습활동이다(Galda & Pellegrini, 1985; McGhee, 1984; Slade, 1995; Wohlwill, 1984). 아동은 놀이 중에 또래로부터 스스로 배운다는 점, 또래들의 문화가 자율적으로 전승된다는 점에서 놀이 연구는 아동들의 정서와 의식을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몇몇 연구들(이경우 외, 1995; 중앙교육연구소, 1962)은 주로 민속놀이 방법을 조사했다. 일상생활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 노래의 내용은 세 가지이다. 우선, 보편적 정서를 다룬 놀이 노래가 있는데 이는 고무줄 놀이와 언어규칙 놀이 중에 부르는 동요이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놀이 노래는 주로 서사적 노래로 동물, 식물, 사람과 자연물 등에서 접하는 구체적 사물에 대한 친근하고 정겨운 정서가 담겨있다(이순형, 1991).

아동의 놀이 노래가 인간의 보편적 정서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사회전통적 문화를 담은 그릇이라면 그 시대의 요구에 입각해서, 유교의 충효사상, 노동의 중요성, 혹은 개화의 이념과 계몽적 지식 등을 전달할 것이다. 실제로 가사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시기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놀이 노래 전통적인 기본 울격형을 유지하면서 서사적 또는 서정적 내용으로 유지되어 왔다(이순형, 1991)면 통시대적 관점에서 이러한 사실이 해방후 근 수십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남한 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어린이들이 일상시에 즐겨 부르는 노래 즉, 놀이 노래에서도 전통적 음률과 주제가 전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분단을 경험하면서 남, 북한은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엄청난 이질화를

경험해 왔다. 남북한이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라는 극단적 차이를 경험해 왔으므로, 이 이념의 차이가 문화 정책의 차이를 가져왔을 것이다.

분단이라는 사회·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즉 이념의 차이를 가져오고, 생활방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등 생활문화의 이질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이기춘 외, 1997). 이러한 생활문화의 이질화는 어린이들의 놀이 방식에도 차이를 가져오며, 이들이 부르는 놀이 노래도 변화되었을 것이다. 자본주의와 달리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획된 정치 사회화를 실시하므로 보육소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음악 교육은 곧 이념 사회화의 한 방법이다. 다만 어린이들이 스스로 놀이 가운데 부르는 그들만의 노래는 어쩌면 공교육으로 인해 학습한 노래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 속에서 살아남았거나 새로 창작된 노래일지 모르며, 성인들이 가르친 노래라고 하더라도 이 노래들이 전통적 가사의 특징을 띠고 있을 지 모른다.

따라서 문화적 사회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어린이들이 놀이 중에 부르는 놀이 노래의 가사에서 서정성과 전통적 음률이 지켜지고 있는지, 놀이노래 가사에서 이념 사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사회적 상황의 특수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정치상황에 따른 한민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과 가사의 전통성 논의에 입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북한 어린이들이 부르는 놀이노래는 통시적으로 밝혀진 전통적 주제와 울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둘째 북한 어린이들이 부르는 놀이노래 가사는 분단후 사회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가? 셋째 북한 어린이들이 부르는 놀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 한 민족 공통의 정서가 어떻게 남아 있는가? 북한 어린이들

이 부르는 놀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 한 민족의 민족 정체성이 나타나는가?

## 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북한 어린이들이 부르는 놀이 노래를 조사하기 위해서 놀이 노래의 동일 세대인 10세부터 20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학교 연령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조사대상은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탈북자 가운데 이 연령대에 속한 대상 16명을 선정했다. 탈북 아동·청소년의 16명은 1996년부터 조사한 1999년까지 남한에 귀순한 가족의 자녀들이다. 이들은 부모와 또는 부모 중의 한 사람과 함께 탈북

해서 중국을 거쳐 귀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재는 서울의 각처에서 정부에서 제공한 아파트에 살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 2. 조사 도구의 구성

조사 도구는 선행연구인 이순형(1991)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의 결과를 통해 얻어진 새로운 사실을 보완하여 본조사의 면접 조사 문항을 구성했다. 면접 조사 도구는 어린이들의 자발적 놀이 종류 및 놀이 방법에

〈표 1〉 탈북 귀순한 조사 대상

연번	성명	연령(세)	귀순시기	재북시 학력	귀순후 현재 학력	현거주지
1	박○○	12	1996.6	인민학교	초등학교 6	서울
2	이○○	12	1996.12	인민학교	초등학교 5	서울
3	김○○	18	1997.1	고등중학교	고등학교 3	서울
4	김○○	15	1997.1	고등중학교	중등학교 3	서울
5	유○○	16	1997.1	고등중학교	고등학교 1	서울
6	유○○	14	1997.1	고등중학교	중등학교 2	서울
7	유○○	12	1997.1	인민학교	초등학교 5	서울
8	안○○	16	1997.5	고등중학교	고등학교 1	서울
9	안○○	14	1997.5	고등중학교	중등학교 1	서울
10	안○○	11	1997.5	인민학교	초등학교 4	서울
11	김○○	18	1998.8	고등중학교	고등학교 2	서울
12	윤○○	14	1998.10	고등중학교	중등학교 2	서울
13	이○○	18	1998.12	고등중학교	검정고시준비	서울
14	한○○	19	1999.1	고등중학교	검정고시준비	서울
15	박○○	16	1999.3	고등중학교	중등학교 3	서울
16	박○○	13	1999.3	고등중학교	중등학교 1	서울

관한 내용, 자발적 놀이에서 부르는 노래의 종류와 가사, 그리고 그러한 노래 놀이의 공급원을 조사하는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놀이노래의 가사는 노래의 가사를 녹음해서 수집했다.

그런데 의외로 놀이노래의 가사를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이 남한에 귀순한 것은 1996년 이후 1999년까지 최근의 일이나, 탈북한 것은 귀순시기보다 가까이는 6개월에서 대부분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이유는 이들이 부모를 따라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심리적 긴장과 곤란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억하지 못하는 가사는 이들 대상의 모친 2인(정○○, 36세; 김○○, 34세)을 대상으로 상세히 알아보았다.

### 3. 조사 절차

98년 이후 귀순하여 아직 기관의 보호 중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98년 이전 귀순한 아동·청소년은 모친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대학 연구실에 오도록 하여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4. 조사 방법

놀이노래의 가사는 두 단계로 조사되었다. 첫째 단계는 예비조사인 개방 면접조사로 각 집단별로 15세-17세의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아는 놀이 방법과 놀이 중에 부르는 노래를 모두 적게 했다. 예비조사는 대략 3-4 시간이 걸렸다.

둘째 단계는 본조사로서 조사대상 모두에게 놀이 종류 및 놀이 방법을 쓰게 하고 놀이 때 부르는 놀이노래의 첫 구절을 모두 쓰게 했다. 1999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학교 교실에서 설문을 나누어 준 후 충분히 시간을 주고서 설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알고 있는 노래를 묻지 않고 놀이 중에 부르는 노래를 응답하게 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민간 정서의 흐름이 면면히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작곡되어 보급된 노래를 알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고 있는 노래가 아니고 실제로 놀이 도중에 부른 경험이 있는 노래를 응답하도록 했다. 조사시간은 1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 5. 자료 분석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자와 2명의 아동학 전공자가 놀이 방법별로 분류하고 다시 놀이노래를 놀이 방법과 놀이노래의 주제별로 그 내용을 분석했다. 이 때 세 사람의 평가자 중에서 둘 이상이 일치되는 쪽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놀이노래 가사의 의미에 대한 분석은 의미 범주를 구성하여 각 범주별 빈도를 계산하는 1차 분석과, 가사의 언어적 의미를 형이상학적 의미 구조 범주를 가지고 분석하는 2차 분석을 실시했다. 1차 분석 범주는 이순형(1991)의 범주에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범주를 수정 보완하여 범주 체계를 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2차 분석의 범주는 크게 사물 범주, 서정범주, 이념범주로 나누고, 세 범주별로 하위 의미범주를 나누었다. 각 하위 범주는 예비조사 결과를 가지고 범주를 분류하여 내용 평가를 실시했다.

2차 의미 분석시에는 본 연구자를 포함한 아동학 전공자 3명이 내용 분석을 행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평가자 3명 중 2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따랐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통계치를 구하였다.

## IV. 연구결과

이 조사의 연구결과는 놀이의 전반적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놀이노래를 세 가지 측면, 첫째 놀이노래의 종류, 둘째 놀이노래 가사의 의미 분석, 셋째 가사의 의미성과 한민족 정서로 나누어 제시하겠다.

### 1. 놀이의 종류, 학습 원천과 놀이 대상

탈북 아동과 청소년들이 말하는 북한에서의 놀이는 고무줄(6), 줄넘기(5), 손벽치기(3), 숨바꼭질(2), 기타 공기(1), 말타기(1), 콩한말(1), 모래쌓기(1), 색동저고리(1), 수건돌리기(1) 등이다. 이들은 주로 신체와 소박한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같이 논 사람으로 친구(39)와 형(2)을 꼽았다.

놀이노래 중에 부르는 노래를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를 조사한 결과 탈북 후 귀순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친구(18), 학교(6), 형(2), 선생님(5), 어머니(4)에게서 노래를 배웠다고 응답했다.

북한의 응답자들은 노래를 36개 부른다고 응답했다. 그중 남한에서 부르는 노래는 4개이고 나머지 32개는 모두 북한의 고유한 노래이다. 북한 노래 32개중에서 그 가사가 순수한 서사적 노래나 서정적인 것은 드문 한편, 서사적 내용하다가 김일성 부자의 숭배내용이 포함되거나 서정적 내용하다가 일제, 미제 타도 등의 내용이 첨가되는 등 정치적 의도성이 내포된 경우가 많다. 남한에서 부르는 노래 여섯 가지는 순수한 동요, '반달' '나의 살던 고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아침바람 찬바람', '손님 들어오세요' 등이다. 이 노래 가운데 가요나 한국의 팝송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북한 노래의 대부분이 혁명 노래인데 그

중에 만화영화 주제가가 세 편이 있었다. 즉 '꼬마 당크 나간다' 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소년장수' 등이었다.

### 2. 놀이노래의 내용

#### 1) 애국의 노래

북한에 어린이들은 놀이 중에 애국의 노래를 부른다. 대표적인 노래가 '조선의 노래' 이고, '산딸기' 도 그에 속한다. '조선의 노래' 는 조선(朝鮮)의 이름을 연상하도록 한 가사에 6, 7조, 즉 3, 3, 4, 3의 울격을 지킨 노래이다. '아침의 햇살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 '산에 산에 산딸기 빨간 산딸기 우리나라 산이 좋아 산에 산대요' '아침햇살 눈부신 빛나는 조국 천리마가 발 구르며 달리는 아침' 등이 사례이다.

'남산의 소나무' 는 의인화된 것으로 누군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눈서리를 맞았다가 양춘(陽春)을 만나 소생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단지 이 노래는 소나무를 그린 조선조 유현의 그림의 한 장처럼 유교적 느낌을 가지고 있다. '남산의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로움을 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 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동포를 만나 반갑다는 노래도 있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얼싸 안고 좋아 기쁨이여 절싸 안고 좋아 눈물일세 어허 허허허허 릴리리아.'

#### 2) 집단주의 생활양식을 고취한 노래

북한의 아동청소년들은 집단의 질서를 고취하는

노래를 자주 반복해서 불러왔다. '앞의 동무도 내 동무 뒤의 동무도 내동무 사뿐사뿐 들어가요 재미 나는 우리교실 '손을 앞으로 손을 앞으로 다같이 손은 앞으로'

### 3) 지도자 찬양의 노래

유일사상에 의해 김일성, 김정일 부자와 그의 부모들을 찬양하도록 한 노래들이 보급되어 왔다. 이 노래들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달리 작곡된 가사가 보급되곤 했다. 성인들도 단체로 모이는 자리에서는 지도자 찬양의 노래가 불려진다. 마치 연인에 대한 노래를 부르듯 지도자에 대한 사랑을 반복해서 부른다. 그 사랑이 집단 최면화를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 '아름다운 꽃시절에 피어나는 내사랑 이내 가슴 깊은 곳에 피어나는 내사랑 아아 해와 달이 무궁하듯이님과 함께 남과 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우선 유치원,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육소와 인민학교 과정에서 보급된 노래는 다음과 같다. '꽃봉오리', '내가 나서 처음 부른 노래'는 등이 그러한 노래이다.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따사로 온 품속에 안아주시는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지도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가 나서 처음으로 부른 노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입니다. 학교에 갈 때나 집으로 올 때나 이 노래 부르며 자랐습니다. 아 이 세상에 부르는 노래가 많고 많아도 이보다 더 좋은 노래 우리는 모른답니다.' '달랑달랑 방울 울리며 송아지는 풀밭에 가고요 어깨동무 손목잡고 원수님을 노래하며 학교로 가요' 인민학교 과정에서 부르는 응원가는 곧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친구는 공부도 잘하지만 운동장에 나서면 체육도 잘한다네 사나운 폭풍도 쳐 몰아내고 신념을 안겨준 김정일 장군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학교에서 학습은 곧 지도자가 공부하려고 천리길을 다녔다는 '배움의 천리길'에서 이어진다. '배움의 천리길 헤치시면서 12살 대원수님 조국으로 나오셨네 조선의 말과 글 어서 배우려 등잔불 아래서 긴긴밤 새우셨네'

김일성과 김정일을 아버지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어느 사회에서도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비바람 창가에 몰아쳐 오고 찬서리 불어온 대도 귀여운 아이들아 걱정을 마라 아버지가 계신단다 소중한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온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아-아버지'

김부자를 온 국민의 부친으로 상정한 것은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아래 '송시'를 통해서 유교시대의 충과 효의 개념을 명백히 볼 수 있다. 송시는 김정일의 50회 생일을 의미하는 듯 광명성의 출현으로 비유하고 있다. 백두산의 정일봉이 가장 높은 지도자를 의미한다. 문무(文武) 충효(忠孝)를 겸비했다는 대목에서는 그 언어나 개념적 의미가 바로 유교의 개념들에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두산 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선돌인가 문무 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우러르는 그 마음 한결같이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장백산 즐기줄기 피어린 자국 압록강 굽굽이 피어린 자국 영력히 비쳐주는 거룩자욱 아-아-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아-그 이름도 그리운 김일성 장군'

때로 그의 업적을 구체화해서 우상화했다. '남몰래 살짝 빠진 캄캄한 밤에 주계선(?) 통신자를 빼앗아 왔건만 규율을 위반했다 비판만 받고 청이 없는 어깨 위에 새가 앉았네'

'정일봉의 우뢰 소리'는 김정일의 힘을 과시하

는 노래이다. '정일봉이 우뢰 우니 천하가 드르릉 먹구름이 몰아치고 하늘이 뒤흔든다 김정일 장군님 불호령 소리에 번개가 몰아친다 우뢰소리 우뢰소리 정일봉의 우뢰소리'

그밖에 김일성의 부인 강반석을 혁명의 어머니로 노래한 '지원의 뜻' 이 있다. '지원의 높은 뜻 이 어가시며 조선의 앞날을 꽃피워 주시네 아 - 위대한 우리의 어머니 혁명의 어머니여 강반석 어머니 반갑습니다'

#### 4) 적대감 고취의 노래

북한 아동의 사회화는 북한의 보육법이 명시하듯 공산주의 혁명 투사의 육성에 있다. 혁명 투사는 비판적 인식뿐 아니라 적대감을 고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북한 어린이들이 놀 때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도 '전진' 이나 '어디까지 왔니? 등 적대감을 고취하는 노래를 부른다. 그 적대감의 대상은 미국, 일본 등 외부 세력이다. '전진이다 전진이다 앞으로 전진 또 전진 원수 미제 물리치려 용감하게 나간다', '어디까지 왔니? 마을까지 왔다. 어디까지 가려니? 학교까지 간다 무엇하러 가려니? 공부하러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 모두 간다 어디까지 왔니? 뒷산까지 왔다. 무엇하러 가려니? 훈련하러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 모두 간다 어디까지 왔니? 고개 넘어 간다. 무엇하러 가려니? 왜놈치러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 모두 간다'

적대감을 고취한 노래 중에 '고향을 위하여' 나 '적기가' 등은 가장 높은 적대감 수준을 나타낸다. 고향을 위하여는 그 가사가 아래와 같다. '타다남은 담벽에 동무의 피 어려있다. 나 어린 가슴에 복수의 피가 끓어 나왔다. 싸움의 길로 동무를 위하여'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쌓았다. 시체 식어 굳기전에 혈전의 붉은 기를 물들인다. 높

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림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자야 갈라면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 5) 집단 자부심과 투쟁성 고취

소년단의 붉은 벵타이는 아동들이 등교하거나 하교하는 길에 집단으로 모여서 오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소년단 행진곡' 이다. 소년단에 입단한 것의 목적성과 집단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이념 노래이다. 붉은 색 벵타이의 상징성은 공격성과 선취성에 있다. '밝아오는 조국땅에 노을 비추며 붉게 타는 벵타이 펄펄 날려라 소년단 동무들이 깃발을 높이려 우리들은 대원수님 나어린 아들딸 공산주의 후비대로 배워나가자 (후렴) 소년단 동무들이 깃발을 높이려 대원수님 뒤를 따라 힘차게 나가자'

예외없이 아동단의 단가가 있다. '목에다 두른 것은 붉은 벵타이 등에다 짐을 지고서 훈련을 나간다. 장하다 그의 이름 아동단 아동단 아동단 세상이 모두 다 칭찬한다. 아동단 아동단 벵타이 벵타이 붉은 벵타이 형님 누나 앞가슴의 붉은 벵타이 유치원생 우리들도 매고 싶어요 유치원생 우리들도 매고 싶어요. 벵타이 벵타이 붉은 벵타이 선열들의 피로 물든 붉은 벵타이 소년대원되면은요 매게 된대요. 소년대원 되면은요 매게 된대요. 나가자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용감한 기세로 어서 빨리 나가자 제국주의 침략자들 국가로 내쫓고 강탈과 학살을 여지없이 하노라'

어린이들은 등교길에 '용진가' 를 불렀다. '동무들이 준비하자 손에다 든 무장 제국주의 침략자를 때려 부시고 용진 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 나가자 판가리 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 손에다 무장을 툠튼히 잡고 나갈 때에'

#### 6) 사회계몽의 노래

혼인의 조건으로 외모나 재산이 되는 것은 북한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아래처럼 혼인을 할 때 남자의 마음을 보라고 하는 노래가 불려지기도 했다. '어떤 처녀 인물보고 시집가고 어떤 처녀 재산보고 시집가네 나는 나는 인물 재산 싫다고 총각의 마음보고 시집가네'

### 7) 연애감정을 표현한 노래

달이넘적 노래로 청소년들이 부르는 연애 감정을 표현한 노래, '휘파람' 이 있다. '어제 밤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복순이네 집앞을 지날 때 휘파람 휘파람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 불었네 휘휘 휘호호호 휘휘호호 휘휘휘호호호'

## 3. 북한 놀이 노래와 민족정서

북한 아동들이 부르는 놀이노래의 종류가 밝혀졌다. 놀이노래의 종류가 다양하다. 동요, 이념가, 텔레비전 광고 노래, 만화나 영화 주제를 비롯해 이념가(理念歌), 단체가(團體歌) 등을 포함한다.

어린이들의 놀이 노래는 세 가지 소재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바다, 달, 산 등 자연물과 사람에 대한 서사적 묘사와 더불어 서정성을 담은 내용으로서 노래의 내용이 전통적 소재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반달' 이나 '나의 살던 고향' 은 한반도가 분단되기 전인 해방 전에 보급되었다. 이 노래들은 서정성이 높으며, 전통적 주제와 가락(율격)이 유지되고 있어서 한국인의 민족정서에 부합되는 점을 가지고 있다. '낮에 나는 반달은 하얀 반달은 햇님이 쓰다버린 쪽박인가 봐' 라는 '반달' 이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로 시작되는 '나의 살던 고향' 은 전형적으로 한국정서를 담은 노래이다.

북한 어린이들이 손동작운동이나 줄넘기를 할

때 '아침바람 찬바람에' 나 '손님 들어오세요' 등 남한 어린이들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즉 어릴 적부터 들어온 노래는 한민족 공동 정서의 토대를 이루므로 이 노래들은 이념과 정치적 차이를 뛰어 넘어 한 민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큰 물결 작은 물결' 도 이와 같은 종류의 노래이다. '아침바람 찬바람에 올고가는 저기러기 우리 선생 계실 적에 엮서 한 장 써 주세요. 구리구리 가위바위보', '손~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들어왔던 손님은 나가주세요 손~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큰물결 작은물결 바람불어서 돌아갑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손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돌, 가, 보 진 사람은 나가주세요'

이 노래들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가르치거나 조부모들이 손자녀에게 가르쳐서 전해진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청소년(16세, 남)은 그의 할머니가 노래를 가르쳐주었다고 응답했다. 이 노래가 4, 4조 율격을 지니고 있어서 한민족 아동들은 쉽게 익힐 수 있다. 손과 다리를 나란히 놓고 부르는 노래로 전통 율격을 지닌 노래가 있다. 북한 어린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우리 전통적 정서를 담고 가족들이 마주 보고 다리를 펴고 앉아서 부르는 손놀이 노래이다. '미운 것도 내 새끼, 고운 것도 내 새끼' 라는 구절은 한국 부모의 마음을 담은 전형적 구절이다. 어린이들이 어미종달새의 말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한 놀이노래이다. '종달아 종달아 어디에 갔됐니 새끼치러 갔됐다. 나 하나 주려마 미운것도 내새끼 고운것도 내새끼 쫌 쫌로롱'

남, 북한에서 작곡되어 서로 모르는 가운데 아동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장한 것인데, 그 노래말의 내용에는 심층적으로 깔려있는 한민족 정서를 찾아볼 수 있다. 남한에는 '우리집 강아지는 복실강



아지' 라는 동요가 있는데 이는 북한의 '우리집 소' 라는 동요와 비슷하다. 학교에 다녀오면 강아지가 반가와 멍멍 짖는다는 남한의 동요나, 눈이 크고 말 잘 듣고 받지도 않는다는 북한의 소는 그 상징하는 바가 공통적이다. 아동과 가축간의 친밀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 어느 곳에서나 개와 소는 집에 식구처럼 상주하는 동물이었다. 눈이 큰 소나 반갑다고 꼬리치며 따르는 개는 유순한 동물의 영상이므로 한민족 공통의 정서를 표현했다고 하겠다. 이는 작위적 호전성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집 송아지 눈이 크고 순해요 내 말도 잘 듣고 받지도 않아요 우리집 송아지 뿔이 크고 순해요 내 말도 잘 듣고 받지도 않아요'

고무줄 넘기를 할 때 부르는 노래도 서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전통 동요에 나오는 기러기떼가 등장한다. '건너 풍선 단 풍선 가을 바람 불어요 기러기떼 나란히 줄을 지어 나르네', '새신을 신고 뛰어 보자 팔짝' 는 남한의 동요와 일맥 상통한다. '꼭맞네 꼭맞네 엄마 사준 고무신 발걸음도 가벼워 날을 것만 같아요'

어린 시절을 잊지 못해 아쉬워하는 서정적 노래나, 토끼를 지켜보는 어린이의 마음을 그린 '양지쪽 창문가에', 어린이의 부모 기다리는 심정을 노래한 '기러기' 와 같은 노래도 없는 것은 아니다. '맑고맑은 냇가에 춤추며 뛰놀던 소꿉시절아 산천은 변해도 변한다해도 그 시절 못잊어 소나무 우거진 푸른 동산 위에서 텅굴며 뛰놀던 어린시절아 산천은 변해도 변한다해도 그 시절 못잊어 '양지꽃 창문가에 우리집 토끼 잠만 깨면 호물호물 풀을 먹지오 아카시아 잎사귀 걱정을 맡아 어서야 큰 토끼 되어 다오' '기러기러 기러기야 너 어데로 날아가니 아빠 엄마 일하시는 저 먼데로 날아가지'

'산골에서 나는야 자라났어요' 는 애향의 범주에 속하는 노래다.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산골에서 나는야 자라났어요 유치원 창가에서 노래

부르며 산골에서 나는야 자라났어요 자라났어요' 「맹맹절사」와 「도라지꽃」도 별 다른 정치적 의도 없이 구성된 노래이다.

'맹맹절사 어데까지 왔니 마을까지 왔다 무엇하러 왔니 수박따러 왔다 수박 이제야 꽃이 폼네 언제 오라나 내일모래 오세 래일모래 동동 래일모래 동동' '심산에 남몰래 피어나는 꽃 그 누가 보라고 애써 피었나 ??? 내고향에 향기를 뿜어주려' 북한에서도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만화영화에 주제를 붙였는데 전파의 탈지역성을 고려해서인지 정치적 의도성을 배제한 채 서정적 가사를 붙였다. 만화영화 '호동왕자와 랑랑공주' 의 주제곡은 다음과 같다. '방울방울 방울꽃 한 떨기에 피었네 임의 마음 내 마음 한 떨기에 피어났네' '달매와 범달이' 의 주제곡은 다음과 같다. '산넘어 들지나 정든 임 돌아왔네 꿈에도 그림던 그 모습 공세우고 돌아왔네' 그러나 만화 '소년장수' 의 주제는 전투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뚱뚱뚱뚱 북을 높이 드러라 펄펄펄펄 깃발 높이 드러라 잘 가거라 소년 장수야 왜놈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너라' 때로 우화적 노래가 불려지기도 한다. 손뼉을 치고 놀면서 부르는 노래는 아래와 같다. '똥똥 똥똥이 집에 가다가 전차에 치여서 납작코 아버지 어머니 달려와 ???'

이외에 북한 사회의 병영사회적 집단주의적 특성에 따라 구성된 놀이노래는 아래와 같다. 북한에서는 사회상황을 대변하는 노래가 아동들의 정치사회화에 빈번히 이용되었다. 구체적으로 군가(軍歌), 노동(勞動)을 강조하는 노래, 통일(統一)을 강조하는 노래 등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는 노래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보다는 공산주의 사회인 북한지역의 어린이들이 이러한 노래를 많이 부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실제 조사자료가 그를 입증했다. 북한 어린이들은 등교 길에 많이 부르는 노래로 '용진가', '소년단 행진곡' 등이 있는데 많이

불려지는 노래이므로 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세한 가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진가」 '동무들이 준비하자 손에다 든 무장 제국주의 침략자를 때려 부시고 용진 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척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 나가자 판가리 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 손에다 무장을 튼튼히 잡고 나갈 때에 「소년단 행진곡」 '밝아오는 조국땅에 노을 비추며 붉게 타는 넥타이 펄펄 날려라 소년단 동무들이 깃발을 높이려 우리들은 대원수님 나(이) 어린 아들딸 공산주의 후비대로 배워나가자 소년단 동무들이 깃발을 높이려 대원수님 뒤를 따라 힘차게 나가자'

분단후 놀이노래의 이질화는 공산주의 사회에는 이념을 고취하는 노래가 많다는 것에서 비롯한 것이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은 이념 고취의 직접적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를 많이 불렀다. 이러한 사회이념 노래가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일부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노래는 행사 때마다 불려졌다. 북한의 경우에 집단 행사가 빈번히 있어 왔고 그러한 행사의 시작과 끝에는 늘

북한의 이념을 고취하는 노래나 김일성 부자를 숭앙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처럼 개인을 숭배하는 노래, 즉 김부자를 찬양하는 노래는 북한의 유일사상(이순형, 1999a)과 관련된 것인데, 중국에도 모택동에 이어 등소평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다. 북한에는 김정일, 김일성 부자에 대한 노래가 매우 많이 불리는데, 사례로 '나서 처음 부른 노래', '정일봉 우리소리', '지원의 뜻' 등이다.

또 다른 특성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적개심과 투쟁심을 고취하는 노래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 일본제국주의자와 미국제국주의자 타파를 외치는 노래가 있다. 그 사례로 '고향을 위하여'와 '어디까지 왔니?', '적기가'가 있다.

이 노래들은 북한 어린이들이 고무줄 넘기를 하거나 등교길에 부르는 노래이므로 그 노래와 가사는 일상화되어 있다. 노래가사는 철저하게 적개심과 투쟁심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상에서 보듯이 북한 놀이노래의 상당수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이념사회화의 한 도구로서 노래를 작곡하여 보급한 것이다.

## V. 결 론

분단후 반 백년이 된 지금 북한 어린이들이 부르는 놀이노래가 어떠한가를 밝히기 위해 귀순아동과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불렀던 놀이노래의 가사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해방과 분단 이후에는 남북한 어린이들의 놀이노래가 이질화되었다. 북한에서는 유일사상과 주체사상을 반영한 노래가 보급되었다. 북한 청소년들은 동요를 비롯해 김일성·김정일 부자 찬송노래, 아동단 소년단 노래 등 이념 노래를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현상은 북한의 아동들이나 청소년들도 만화영화 주

제가를 부른다는 것이다. 매체가 보급되면 북한에도 노래의 변화가 올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징조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의 놀이노래는 그들의 체제 수호의 기능에 충실하여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북한 아동·청소년들이 부르는 놀이노래의 일부가 애국, 애향 등을 묘사했거나 서정적 내용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상당수는 집단주의와 유일사상에 의한 노래들이었다. 구체적으로 유일사상에 입각해 김일성 부자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노래가 많았으며,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을 찬양한 노래도 있었다. 김일성을 아버지로 강반석을 민중의 어머니로

노래한 것들은 이순형(1999a)이 말한 북한 주체사상의 가족주의적 요소를 입증해 준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특성은 곧 아동, 청소년들의 정치 사회화를 위한 도구로 놀이노래가 사용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이 등교길에서나 하교길에 부르는 노래들, 아동단과 소년단의 용진가 등은 집합주의적 행동 양식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작곡된 것이 많았으며 이러한 노래들이 빈번한 단체 행사에서 불려졌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보급과 정권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성 때문에 북한의 놀이노래가 특정 의미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외세나 외국의 영향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반세기동안 외국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말 가사를 지키고, 그것을 유지해 왔다. 노래의 소재는 일제시대의 노래들의 소재와 이어지고, 소박한 우리말을 지키고, 한민족의 정서를 표현하였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마치 남한사회의 1960년대의 놀이노래의 양상을 보는 듯하다. 북한 놀이노래의 율격은 4(3), 4조의 한국 전통적 율격을 지키는 반면에 일제시대 이후 보급된 7, 5조의 율격이 동시에 혼재하고 있다.

북한 아동들은 신체 활동을 주로 하고 소박한 자연물을 가지고 논다. 북한에서는 현재 일제시대에 보급된 동요를 여섯 곡을 부르고 있다. 이는 한민족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북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놀이노래를 통해서 남한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원천, 내지는 놀이노래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전후에 작곡된 노래들이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노래들에서 전통가락과 율격을 지키고 소재가 한민족의 것임과 관련해 어린이들이 민족 정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래의 기초 가락과 율격을 통해서 민족 공통체로서의 정서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의 차이로 인해 반세기 동안 달리 형성된 한민족 아동·청소년들이 만났을 때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한민족 동포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어린이 노래 대회 등을 비롯해 남북한 어린이의 만남을 통해 서로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통해 형성된 적대적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는 남북한 아동의 만남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음악교재의 한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남, 북한 어린이의 적대적, 경쟁적 관계에서 오는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데에는 자연스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노래의 학습기능을 활용해 정서적 공통성에 기초한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요구에 부합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토대를 둔 상호이해교육프로그램으로서 사회화 교육이나 통일 교육의 한 부분으로 공교육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상호 이질감 해소를 돕는 방책으로 놀이노래의 전파성을 이용하여 전통적 동요를 비롯한 놀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TV를 비롯한 언론매체에도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대화는 극단적 경쟁체제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다원적 사고의 관점에서 한민족 상호이해의 장이 마련되어 한 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한민족 공동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상매체가 확산된 사회에서 십대 청소년이 자유롭게 영상으로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아동이 가요를 놀이노래로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은 영상매체가 확산되지 않은 실정이다가 폐쇄적으로 사회이므로 아직까지는 아동의 놀이노래에 십대의 대중 문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연변 교포 아동의 놀이노래에 가요가 많

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순형, 1999b)은 앞으로 북한 아동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시사한다.

정부는 인기있는 청소년 그룹의 가수들이 민족 정서가 깃든 노래를 문화상품화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노래는 현재에도 남한과 중국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한 까닭에 느끼는 불안감, 성인 세대와의

세대간 차이로, 성인들과의 대화 단절로 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노래는 위안을 주고 불안을 해소시키고 있다. 남북한간에 갑작스런 통합이 올 때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김혜은·서봉연·이순형, 1999a, 1999b)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충격과 혼란이 예상되는데 그 때에도 청소년의 대중문화가 그들에게 위안과 결속력을 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혜은·서봉연·이순형. (1999a). 통일이후 구 동독 지역 청소년과 성인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 변화에 대한 태도. *인간발달연구*, 제6권, 2호, 1-17.
- 김혜은·서봉연·이순형. (1999b). 통일이후 구 동독 지역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아동학회지*, 제20권, 2호, 279-297.
- 이경우·이상금·이은화·박혜경·김세희·한진이. (1995). *5개국 전래 동요에 관한 연구*. 서울: 창지사.
- 이기춘·이기영·이은영·이순형·김대년·박영숙·최연실 (1997).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 *대한가정학회지*, 35권, 6호, 289-315.
- 이순형. (1991). 놀이노래 가사의 실태와 가사의 전통성 조사. *아동학회지*, 제12권, 1호, 68-77.
- 이순형. (1999a). 북한의 주체사상 사회화의 원리와 한계. *교육학회지*, 37권, 4호, 120-136.
- 이순형. (1999b). 중국, 남한과 북한 어린이들의 놀이 노래와 한민족 정서. *한국아동학회 2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밀레니엄 시대의 아동환경변화와 아동학의 기여>에서 주제 발표.*
- 중앙교육연구소. (1962). *한국 아동의 놀이에 관한 실태 조사*. 서울: 중앙교육연구소.
- Galda, L., & Pellegrini, A. D. (Ed.) (1985). *Play, language, and storie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literate behavior*. Norwood, NJ: Ablex Publishing.
- McGhee, P. E. (1984). Play, incongruity and humor. In T. D. Yawkey & A. D. Pellegrini (Eds.), *Child's play: Development and appli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lade, P. (1995). *Child play: Its importance for human development*. London: J. Kingsley Publishers.
- Wohlwill, J. F. (1984). Relationships between exploration and play. In T. D. Yawkey & A. D. Pellegrini, (Eds.), *Child's play: Developmental and appli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